원담스님은? 덕숭총림 설립…평생 가행정진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은 1926년 전남 옥구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꿈에 신승이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여 '몽술(夢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올지 않던 아이가 화주하러 온 스님의 목탁과 염불 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12살 되던 1937년 이모를 따라 수덕사를 찾은 스님은 정진하는 스님들의 청정한 모습에 환희심을 느껴 출가했다. 천장사와 전월사 등에서 만공 스님을 시봉하며 5년 여 동안 행자생활을 한 스님은 16세 되던 1941년 벽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스님의 은사 벽초 스님은 평생 수행을 한 농선도인(農禪道人). 일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간 도인이었지만 스님은 한번도 "무엇을 했다"고 상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원담 스님은 이러한 벽초 스님의 가풍을 계승하여 현대의 선농일여란 새로운 가풍을 진작시키기도 했다.

만공 선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은 후 가행정진하다 1970년 수덕사 주지로 취임 덕숭총림의 기초를 닦기 시작해 1983년 덕숭총림을 설립했다. 이후 스님은 〈만공법어집〉을 발간하는 등 덕숭선맥의 선풍을 계승하기 위한 수행에 힘써오다 지난 86년부터 혜암 · 벽초 스님에 이어 덕숭총림 3대 방장에 취임했다. 현재 스님은 염화실에 주석하며 많은 수좌들을 제접하지만 대부분 1700 공안만 달달 외울 뿐 진정으로 공부한 수행자가 없음을 걱정하고 계시다. '도인'이라는 헛껍데기 이름에 만족하지 말고 진실한 수행자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항상 웃음 머금은 모습 제자와도 격의 없지만 공부시킬땐 엄격

서 하신다. 특히 〈부모은중경〉 법문은 대중들 모두가 눈물을 쏟게 할 만큼 명설법이었다고 수덕사 스님들은 입을 모은다.

스님은 누구나 나를 찾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신다. '나'를 찾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깊은 산 속 선방만 선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방에 상주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간단없이 정진할 수 있지만, 참선하는 사람은 각각 자기 육체가 곧 선방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은 "방장스님은 항상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으라고 설하셨다"며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었지만 내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지 못한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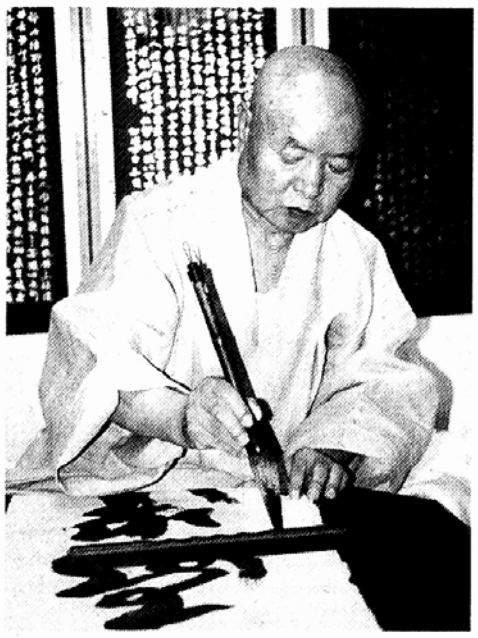
원담 스님은 납자들의 제접을 받는 자리에서 '나 자신이 나를 깨닫는 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만공 스님의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님이 지난 68년 누구나 자기의 본래면목을 밝히려는 이들에게 거울이 되며, 자기 마음의 고향을 찾는 이에게 나침반이 되며, 자기완성의 피안을 향하는 이에게 쾌속정이 되게 하기 위해 〈만공어록〉를 펴냈다고 밝힌 점에서 알 수 있다.

원담 스님이 행자시절 만공스님이 설한 법어를 정리한 이 어록 가운데 참선법에 대해 적은 내용을 살펴보자.

"참선법은 평범한 연구나 공부가 아니다. 대답이 끊어진 참구법 곧 터럭 끝 하나 얼씬거리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백년의 연구가 일분간의 무념처(無念處)에서 얻은 이것만 같지 못하다. 일체 생각을 쉬고 일념에 들되, 일념이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무념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원담 스님은 만공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 덕숭선맥을 오롯이 잇고 있다.

원담 스님은 선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람수호에도 남다른 노력을 해 오셨다. 수덕사를 덕숭총림으로 설립한 것도 스님의 공이 크다. 지난 60년대 스님은 화엄사 주지를 그만두고 "한국 근세 선불교사의 거목인 경허 · 만공 스님의 수행도량인 수덕사가 먼저 총림이 돼야 한다"며 기초를 닦기 시작해 83년 드디어 덕숭총림을 설립했다.



◇서예를 수행의 한방편으로 삼고 있는 원담 스님은 빼어나면서도 선기가 서려있는 글씨로도 유명하다.

독학으로 서예공부 틈틈히 묵향 어울림 글씨마다 禪機 서려

'원담 스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서도(書道)이다. 스님은 한 때 여러 사찰의 현판을 쓸 정도로 글씨가 뛰어나 승속을 막론하고 스님의 글씨를 소장하고자 원한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글을 쓰지 않으시다 최근 다시 붓을 잡았다. 예전처럼 힘찬 기상은 줄었지만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 쓴 글씨에는 선승 특유의 선기(禪機)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 글을 쓰신다는 스님은 요즘 "세간과 더불어 청산 어느 것이 옳으냐, 봄빛 이르는 곳과 다 꽃이 피더라. 대지산하 이 것이 나의 집이거늘 다시 어느 곳에서 고향을 찾는고"란 뜻의 '世與靑山何者是(세여청산하자시) 春光無處不開花(춘광무처불개화) 大地山下是我家(대지산하시아가) 更於何處覓鄕土(갱어하처멱향토)'를 즐겨 쓰신다.

언제부터 어느 분에게 서예를 배우셨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글을 가르쳐 준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신다. 스님이 처음 붓을 쥔 것은 문인들이 즐겨 찾았던 서울 인사동 운당여관에서 일할 때이다. 그 당시 스님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글자가 손에 익을 때까지 밤새 쓰고 또 썼다고 한다. 이러한 끈질긴 독학을 통해 터득한 스님의 서체는 일본 산케이 신문사 주최 국제서도전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독특하다. 스님이 현재 주석하고 계신 염화실 현판도 직접 쓰신 것이다.

원담 스님의 하루는 선정에 드는 일과 묵향과 만나는 일 등 평범하다. 2일 저녁 포행에는 그 동안 여러 선원에서 수행하다 수덕사에 머물고 있는 상좌 법찬 스님이 은사를 모셨다.

법찬 스님이 "스님, 요즘 공부가 잘 안됩니다"라고 하자, 원담 스님은 "공부가 잘된다고 느낄 때 공부와는 벌써 어긋나는 것이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침을 주신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 이 공부밖에 할 일이 없다는 간절하고도 결정적인 신심부터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법보 · 법찬 두 제자와 경내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눈 스님은 다시 염화실로 향한다.

대웅전 앞을 지날 무렵 저녁 예불에 참석하기 위해 사찰에 온 노부부가 스님을 향해 반갑게 인사를 올렸다. 스님은 특유의 천진불 미소로 반갑게 답례 하신다.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은 입을 열지 않고도 그 모습 자체만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주시는 바로 그런 선사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 지묵스님



지묵스님은 인상이 참 푸근하다. 마치 집안의 큰 형님 같은 느낌이 든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어색하지 않은 그런 스님이다. 이런 느낌을 친화력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금새 스스럼없이 웃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

송광사에서 살던 시절 지묵스님은 교무소임을 맡고 계셨는데 가끔 율원채로 쓰이던 부도전에 들리시곤 하셨다. 차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스님의 말씀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난다. 스님의 언변은 시냇물이다. 막힘이 없이 좔좔 흐른다는 뜻이다. 스님의 입을 통해 영화 한편이 상영되기도 하고, 책 한 권이 그냥 읽혀진다. 그런데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책상에서 읽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그래서 스님과 앉아 있으면 시간의 개념을 잊는다.

한번은 아침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점심 공양 후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다. 그 당시 선방스님들에게도 지묵스님의 지대방 입담은 이미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다. 지묵스님이 차 한잔 나누려고 선원 지대방 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모두들 자리를 슬슬 피한다고 한다. 지묵스님의 이야기에 빠져들면 다른 일을 미루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말씀을 재미나고 맛깔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법정스님의 지론은 내게도 하나의 지침이며 교훈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억지로 글을 짜내지 말고 솔직 담백하게 쓰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 쓰는 일로 따지자면 지묵스님은 내게 있어서 스승인 셈이다.

송광사에서 스님의 수련회 일을 잠깐 도운 적이 있다. 수련회에 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고도 남는 분이다. 사자루에서 스님 손을 거쳐간 수련생들만 모아도 수천명은 족히 될 것이다.

한번은 수련생 한 사람이 입선 시간보다 5분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다. 이 때 스님은 사정 봐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퇴방 조치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 수련생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갔고 나머지 수련생들은 좌선 시간으로 이어졌다. 잠시 후 스님은 내 곁으로 오셔서는 방금 나간 수련생을 불들라고 귓속말로 하시는 게 아닌가. 결국 그 수련생은 율주이셨던 보성 큰스님이 지묵스님에게 공개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여행담 등 이야기보따리 처음 만나는 이 금새 웃게

스님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틀을 이야기 했다는, 전설같은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다.

아마 이러한 스님의 입담은 스님 특유의 성격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방 선원에서 수행한 이력과 풍부한 여행의 경험 때문이다. 출가하기 전 무전여행 하던 시절과 엿장수 시절만 해도 하루가 모자란다. 그리고 각 사찰에 얽힌 설화와 외국 여행담까지 풀어놓으면 한 달도 빠듯하다. 스님과 마주 보고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천일야화(千日夜話)의 주인공 세헤라자데 만큼이나 이야기 보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에 놀란다. 조사어록 구절이 줄줄 나오는가 하면, 동네 약장수 실력을 능가하는 의학정보도 쏟아져 나온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듣고나면 귓등을 스치고 마는 그런 잡담이 아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소참법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마 한여름 밤의 별빛아래에서 스님 이야기를 듣는다면 더 달콤하게 가슴에 남을지도 모른다.

스님의 글 또한 이러한 성품을 닮아 이야기하듯 막힘 없이 이어진다. 문장 하나 하나가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것 같다. 스님이 처음으로 쓰신 수상집 〈죽비 깎는 아침〉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스님 글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단숨에 다 읽어버리게 하는, 흡인력 있는 그 문체를 늘 배우고 싶다. '뻔뻔스러워야 글을 쓸 수 있다'는



다시 수련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 날 스님의 그런 행동으로 느슨해진 수련회 분위기가 다시 팽팽해졌다. 한 사람의 수련생에게도 인정을 잃지 않으면서 미덕을 보인 것이다. 밖으로는 추상같지만 안으로는 춘풍(春風)이 흐르는 스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 대표적인 일화다. 수련생을 다루는 이러한 스님의 솜씨 때문에 송광사 수련회는 엄격한 질서와 아울러 인정과 감동이 넘치는 수련회로 소문이 나 있다.

독살이 토굴에 안주할 나이가 되셨는데도 대중생활을 고집하시는 스님의 수행자세는 후배들에게 늘 귀감이 된다. 한 곳에 오래 안주하는 생활을 거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홍길동처럼 이 절에서 저 절로, 영국에서 인도로, 또 중국에서 티베트로, 종횡무진 수행길에 오르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일전에 중국선종을 답사하고 쓰신 〈달마와 혜능〉 책을 보내주셨는데 인사도 올리지 못했다. 글을 통해 스님이 어디 계신지 소식을 듣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언제나 가깝게 느껴진다. 최근에는 불교방송에서도 스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반갑긴 한데 얼마나 하실런지 궁금하다. 또 바람처럼 어디론가 훌쩍 먼 곳으로 떠날지 모르니까 말이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 육임래정비법 -

「易術活人天役者用」 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 - 17시까지 홍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유명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일의 시간만 펼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측셈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揭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짐작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判斷上 부서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개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몇 고침 병인지, 언제부터 치도가 있게 될 것인지, 치료기 소요일을지 더멀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알아 맞혀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探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길흉을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방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器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流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 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1960페이지 · 미색용지 · 습셀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단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남구 수유 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葆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산성쪽으로 100M쯤의 기원정시 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육임 세밀정단법 출시중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진성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청 옥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